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

황은휘^{1,*} · 이소영^{2,†}

¹경운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²경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0년 9월 17일 접수: 2020년 12월 29일 수정: 2020년 12월 29일 채택)

Factor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Hwang Eun-hwi^{1,*} · Lee So-young^{2,†}

Department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1*,2†}

(Received September 17, 2020; Revised December 29, 2020; Accepted December 29, 2020)

요약 :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이를 위해 G시 간호대학생 3학년 156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의 영향요인으로는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실습만족도, 성적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활용한 간호대학 교과목에 적용과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셀프리더십,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간호대학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n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56 third graders who are attending nursing university in G city. Self-leadership h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sufficienc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influencing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is study show that the factors affecting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can be helpful in the application of nursing education and programs.

Keywords : *self leadership,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Corresponding author
(E-mail: 108959@naver.com)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최근 급속하게 변화하는 의료현장에서의 의학 기술·지식정보의 발달과 대상자의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아져 간호사의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1].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더 이상 간호사는 일반적인 간호 제공이 아닌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한 책임감 있는 전문적인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 간호전문인이 필요하다[1]. 보건의료현장에서는 간호전문인의 독립적인 역할과 의료지식습득을 위한 목표를 설정, 판단, 의사결정으로 자기관리능력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한 셀프리더십을 간호사의 핵심역량 중 하나로 들고 있다[2].

간호사의 셀프리더십은 간호현장에서 간호사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하여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이다[3]. 많은 대학에서는 현재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 향상을 위한 자기관리, 자아실현, 자아존중감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4,5]. 셀프리더십 향상은 간호사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병원 조직 전체의 성과향상까지 연결되어 더욱 필요한 부분이다[5]. 대학생 시기부터 형성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역량있는 간호 리더로 성장할 수 있어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형성은 꼭 필요하다[4].

의료기관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환자의 건강문제를 파악하며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중요한 역량으로는 의사소통능력이 있다[6].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가 환자·보호자에게 긍정적인 치료적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의 다양한 직종 간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며 간호업무의 효율성 향상으로 조직의 성과향상과 목표달성까지 이룰 수 있다[7]. 간호사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사 자신에게 자기만족과 직무 만족까지 줄 수 있어[8], 간호대학생 시기부터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다[8]. 간호대학생의 긍정적인 의사소통능력은 자신의 학업 만족감과 자기효능감으로 나타나 학습자가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느낌과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9].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에게는 임상에서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7,10]. 간호 임상 실습 전

간호에 대한 명확한 이념과 구체적인 목적 없는 간호 수행은 잘못된 간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간호의 미래를 책임질 간호대학생에게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필요한 부분이다[10]. 간호대학생의 향상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임상 실습 만족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기술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11]. 그리고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만족도 향상은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한 셀프리더십의 한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12].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만족도는 긍정적이면 자신감 있는 효과적인 임상 실습으로 연결되어 간호대학생이 미래에 임상에서 간호사로서 역할수행에 필요한 역량있는 간호전문인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13,14].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임상적응력[4,10]과 살펴보거나, 임상 실습만족도와 임상 실습스트레스[12]로 살펴보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이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를 셀프리더십의 요인으로 함께 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미래 간호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정도와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및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와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G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이면서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정기준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풍부한 경험으로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수 있고 임상 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이 1, 2학년보다 셀프리더십이 높지만[15], 4학년은 전공 학습의 과중함, 국가시험준비, 취업 준비과정에서의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로 자기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 3학년보다는 셀프리더십이 낮다는 선행 연구[1]에 근거하여 3학년으로 선정하였다. 표본수는 G*power 3.1.9.4 프로그램으로 유의수준 0.05, 중간 효과크기 0.15, 검정력 90%, 예측변수 10개를 기준으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는 147명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Hur[15]이 개발한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GICC)를 Bae[16]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 10, 11번은 역 문항으로 처리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Bae[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2.3.2.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Kim과 Park[17]의 도구로 과제난이도,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다. 문항 2, 3, 6, 7, 21, 22, 23, 24, 25, 26, 27, 28번은 역 문항으로 되어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Park[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2.3.3. 임상 실습만족도

본 연구에서 임상 실습만족도는 Cho와 Kang

[18]의 도구를 Lee, Kim과 Kim[19]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실습교과,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로 구성된 총 31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등[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2.3.4.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Houghton과 Neck [20]이 개발하고 Shin[21]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3가지 변인과 9가지 하위영역이며, 행동 중심적 전략은 자기목표설정, 자기보상, 자기관찰, 자기단서, 자기치별로 자연적 보상전략은 자연적 보상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건설적 사고전략은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자기대화, 신념과 가정분석의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대상자들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배경, 방법 및 절차, 연구 참여 중단, 개인정보 보호여부를 설명하였고, 연구결과는 순수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보장됨을 설명 후 서면동의를 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필요한 표본수는 147명에서 탈락률 20%를 고려한 176부를 배부였고 총 170부가 수거되었으며, 미기재 혹은 불충분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156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은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t-test, ANOVA를 시행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하였다. 셀프리더십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56명 중 여자 81.5%,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동거' 48.7%, 전공만족도 '보통'이 46.2%, 성적은 '3.0-3.5점' 42.9%로 나타났다. 리더십 교과 이수여부는 '있음' 91%, 리더 경험은 '없음' 64.7%이었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도($F=9.19, p<.001$), 성적($F=2.70, p=.04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검정 결과 전공만족도가 '만족'은 '매우 만족'이었고, 성적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일반적 특성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임상 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F=3.37, p=.01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정에서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셀프리더십에서는 성별($t=-2.26, p=.025$), 전공만족도($F=5.40, p<.001$), 성적($F=5.84,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적은 2.5-2.9점보다 3.0-3.4점에서, 3.0-3.4점은 3.5-3.9점과 4.0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3.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 정도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3.72 \pm .51$ 점,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3.14 \pm .35$ 점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자기조절 효능감 $3.40 \pm .57$ 점, 과제난이도 선호 $3.05 \pm .38$ 점, 자신감 $2.93 \pm .70$ 점 순이었다. 임상 실습만족도는 $3.46 \pm .40$ 점으로 실습교과 $3.59 \pm .59$ 점, 실습평가 $3.54 \pm .65$ 점, 실습내용 $3.50 \pm .41$ 점, 실습환경 $3.50 \pm .51$ 점, 실습시간 $3.38 \pm .68$ 점, 실습지도 $3.37 \pm .56$ 점이었다. 셀프리더십은 $3.43 \pm .46$ 점으로 자기단서 $3.71 \pm .72$ 점, 자기보상 $3.65 \pm .74$ 점, 신념과 가정분석 $3.54 \pm .62$ 점, 자기관찰 $3.50 \pm .59$ 점, 자기목표설정 $3.42 \pm .66$ 점, 자연적 보상 $3.36 \pm .62$ 점, 자기대화 $3.35 \pm .66$ 점, 성공적인 수행 상상하기 $3.32 \pm .73$ 점, 자기처벌 $3.29 \pm .75$ 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상관관계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r=.580,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r=.489, p<.001$), 임상 실습만족도($r=.495, p<.001$)는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r=.337, p<.001$), 임상 실습만족도와 의사소통능력($r=.411, p<.001$), 임상 실습만족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r=.333, p<.001$)에서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3.4.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을 보이는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와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전공만족도, 성적을 독립변인으로 더미변수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수정된 설명력은 52.2%이었고, 의사소통능력($\beta=.354, p<.001$), 학업적 자기효능감($\beta=.262, p<.001$), 임상 실습만족도($\beta=.253, p<.001$), 성적($\beta=.241, p<.001$)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 독립성, 정규성, 등분산성의 조건을 시행하였고,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가 .47-.97로 1.0이하, 분산팽창지수(VIF)는 1.030-2.118로 10을 넘지 않았다. 오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93으로 2에 가까워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셀프리더십의 정도를 조사하고,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평균은 3.72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대상으로 실시된 Lee과 Chung[21]의 연구에서는 3.73점으로 유사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이 다양한 병원 직원과 환자 및 보호자의 관계에서 수행되는 임상실습환경에서의 문제해결능력 과 실습목표달성을 수행한 결과에서 나타난다고 하였고[22], 임상실습과정의 다양한 인간관계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5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ienc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 leadership	
			M±SD	t/F (p)	M±SD	t/F (p)	M±SD	t/F (p)	M±SD	t/F (p)
Gender	Male	29 (18.6)	3.57±.54	-1.73 (.086)	3.03±.43	-1.89 (.060)	3.93±.47	.38 (.699)	3.25±.56	-2.26 (.025)
	Female	127 (81.4)	3.75±.49		3.17±.33		3.46±.38		3.47±.43	
Residence Status	Parents	76 (48.7)	3.75±.51		3.15±.37		3.49±.41		3.44±.44	
	Dormitory	37 (23.7)	3.67±.56	.34 (.713)	3.14±.29	.05 (.943)	3.45±.34	.34 (.710)	3.39±.42	.19 (.820)
	Live alone	43 (27.6)	3.71±.45		3.12±.39		3.43±.43		3.45±.53	
Satisfaction of major	Very satisfied ^a	8 (5.1)	4.29±.42		3.22±.20		3.72±.43		3.91±.35	
	Satisfied ^b	62 (39.7)	3.89±.42		3.22±.35		3.56±.40		3.53±.43	
	Average ^c	72 (46.2)	3.55±.48	9.19 (p<.001) a>c>d	3.07±.35	2.12 (.080)	3.38±.35	3.37 (.011)	3.30±.46	5.40 (p<.001) a>b>d
	Unsatisfied ^d	9 (5.8)	3.67±.45		3.23±.42		3.30±.39		3.52±.43	
	Very unsatisfied ^e	5 (3.2)	3.20±.63		2.95±.48		3.25±.67		3.12±.18	
Academic achievement	≤ 2.4 ^a	-	-		-		-		-	
	2.5-2.9 ^b	24 (15.4)	3.47±.39		3.03±.39		3.39±.39		3.12±.44	
	3.0-3.4 ^c	67 (42.9)	3.72±.57	2.70 (.047)	3.14±.38	.97 (.405)	3.44±.39	.75 (.522)	3.38±.44	5.84 (p<.001) b<c<d,e
	3.5-3.9 ^d	50 (32.1)	3.79±.44		3.17±.31		3.53±.42		3.55±.40	
≥4.0 ^e	15 (9.6)	3.87±.48		3.19±.32		3.48±.37		3.73±.49		
Leadership training	Yes	142 (91)	3.72±.52	.44 (.661)	3.15±.36	1.12 (.261)	3.45±.39	-.87 (.381)	3.43±.47	.13 (.892)
	No	14 (9)	3.66±.49		3.04±.30		3.55±.49		3.41±.42	
Leadership experiences	Yes	55 (35.3)	3.82±.53	1.87 (.063)	3.19±.34	1.36 (.174)	3.50±.35	.765 (.445)	3.48±.46	.99 (.317)
	No	101 (64.7)	3.66±.49		3.11±.36		3.44±.42		3.40±.47	

Table 2. Level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ienc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Self-leadership (N=156)

Variables	Categories	M±SD
Communication competence	Total	3.72± .51
	Efficacy for self confidence	3.40± .57
Academic self-efficiency	Task difficulty preference	3.05± .38
	Self-confidence	2.93± .70
	Total	3.14± .35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ubject	3.59± .59
	Practice evaluation	3.54± .65
	Practice contents	3.50± .41
	Practice circumstance	3.50± .51
	Practice time	3.38± .68
	Practice guidance	3.37± .56
	Total	3.46± .40
Self-leadership	Self-cueing	3.71± .72
	Self-reward	3.65± .74
	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	3.54± .62
	Self-observation	3.50± .59
	Self-goal setting	3.42± .66
	Focusing on natural rewards	3.36± .62
	Self-talk	3.35± .66
	Visualizing successful performance	3.32± .73
	Self-punishment	3.29± .75
	Total	3.43± .46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N=156)

Variables	Communication competence	Academic self-efficiency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Self-leadership
	r (p)			
Communication competence	1			
Academic self-efficiency	.33**	1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41**	.33**	1	
Self-leadership	.58**	.48**	.49**	1

** $p < .001$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Self-leadership (N=156)

Variables	B	S.E	β	t	p	Tolerance	VIF
(Constants)	.67	.07		5.28	<.001		
Communication competence	.32	.06	.35	5.32	<.001	.75	1.03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32	.07	.25	4.13	<.001	.66	1.81
Academic self-efficiency	.30	.07	.26	4.11	<.001	.59	2.11
Gender*	.09	.06	.07	1.32	.188	.41	2.06
Satisfaction of major*	.03	.03	.06	1.05	.293	.94	1.86
Academic achievement*	.13	.03	.24	4.04	<.001	.97	1.38

R²: 0.540%, Adj R²: 0.522%, F:129.208, Durbin-Waston: 1.93

* Dummy variables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수행은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평균 3.14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간호대학생으로 진행된 Lee[23]는 3.09점, Lee와 Bong[24]은 3.17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자는 3학년, Lee[23]는 1학년과 4학년을, Lee와 Bong[24]은 2학년이 가장 많이 참여하였는데 간호대학생 모든 학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가 새로운 학습상황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도록 하는 원동력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며, 이렇게 지각된 학업된 자기효능감으로 과제를 지속·반응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평가하는 능력을 자기조절 효능감이라고 한다[11]. 간호대학생은 학교에서 실제 사례로 배운 이론적 근거와 케이스를 연결하는 학업을 통하여 성공적인 자가학습으로 학습수행과 학업병행이 이루어지면서 자기조절 효능감이 모두 높은 것으로 보이며 높은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신감을 함양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11,24].

임상 실습만족도 평균은 3.46점으로 동일한 도구와 대상으로 이루어진 Lee와 Jeon[24]의 연구에서는 3.28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상 실습 경험은 간호대학생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기회가 되어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로 선택의 계기로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 경험이 어떠하였는가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25]. 그러나 임상 실습만족도에서 낮은 점수인 실습시간과 실습지도는 다양하지 못한 임상 실습 현장과 함께 실습 지도 교수진과 임상현장 지도자의 일관되지 못한 지도가 영향요인으로 간호대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변화된 임상현장의 맞춘 실습지도와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간호대학생 셀프리더십은 3.43점으로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대상이 간호대학생인 Lee와 Bong[24]의 연구에서 3.49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 하위요인 중 자기단서와 자기보상이 높게 나타나는데, 자기단서는 최상의 환경적 조건에서 행동하기 위한 부정적인 단서들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단서를 확대하는 행동적 전략을 의미한다[23]. 선행연구에서도 자신이 인지한 행동적 전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24]. 간호대학생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중 메모·기록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일에 관한 꾸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27,28]. 반면에 낮은 점수가 나온 자기 처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피드백이 부족함을 의미하며 이는 셀프리더십을 통하여 객관적 자아성찰을 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성별, 전공만족도, 성적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전공만족

도가 매우 만족일수록, 성적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났다. Kim[27]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반복적인 연구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Park과 Han[26]의 연구에서도 간호학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셀프리더십이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전공만족도는 성적관리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주도적 학습을 통한 목표 관리로 인한 향상으로 책임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하였다[2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향상에서는 전공에 관한 흥미와 동기유발을 위함이 적용된 학과 교육 및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1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은 결과는 Yun과 Kwon[28]의 선행연구와 유사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결과는 Lee, Bong과 Lee의 연구와 유사하였다[24,25]. 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결과는 Yang과 Moon[2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을 보이는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와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전공만족도, 성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 성적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un과 Kwon[28]는 의사소통능력을 상대에게 신뢰와 성실을 기반으로 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고, 스스로 행동과 생각을 주도적이며, 책임감 있는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셀프리더십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보여준다. Lee[23]는 과제수행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셀프리더십의 목표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적인 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임상 실습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 다양한 경험을 통한 문제해결에

참여하여 얻은 신뢰감은 자신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27,30].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간호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를 상승시켜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을 역량 있는 간호전문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소통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에 따른 셀프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의사소통능력 향상, 학업적 자기효능감, 임상 실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학업과정의 변화와 전공 외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References

1. H. J. Park, "Correlation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 227-236, (2015).
2. E. H. Kim,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4, No.1 pp. 532-541, (2016).
3. J. H. Ryu, J. H. Cho, "Influencing of resilience and innovative organization culture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2 pp. 525-534, (2018).
4. S. Y. Lee, Y. Y. Kim, "The effects of

-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4, No.3 pp. 309-318, (2016).
5.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6, No.2 pp. 143-151, (2010).
 6. S. H. Lee, S. E. Chung, "Influencing factors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on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2 pp. 340-349, (2014).
 7. S. I. Im, J. Park, H. S. Kim, "The effect of nurse's communication and self-leadership on nursing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21, No.3 pp. 274-282, (2012).
 8. Y. J. Choi, G. W. Lee, C. H. Jung, A. R. Lee,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and rational-emotive training on communication ability, stress coping behavior, and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Vol.18, No.2 pp. 186-196, (2009).
 9. A. Bandur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1986
 10. J. W. Park, C. J. Kim, Y. S. Kim, M. S. Yoo, H. Yoo, S. M. Chae, J. A. Ahn, "Impa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general self-efficacy, and leadership on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Vol.24, pp. 223-231, (2012).
 11. C. P. Neck, G. W. Stewart, C. C. Manz,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Vol.13, pp. 278-302, (1995).
 12.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pp. 216-225, (2011).
 13. D. Y. Lee, J. H. Cho,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0 pp. 561-569, (2018).
 14. S. Y. Lee, S. Y. Jeon, Y. Y. Kim, "The effec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esteem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10, No.1 pp. 155-165, (2016).
 15.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Vol.47, No.6 pp. 380-408, (2003).
 16. J. Y. Ba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skills, communication types and nursing performance of hospital nurses* [master's thesis]. Busan: Ko Sin University; 2009. p. 1-78.
 17. A. Y. Kim, J. Y. Park,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39, No.1 pp. 95-123, (2001).
 18. K. J. Cho, H. S. Kang, "A study on self-concep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Vol.14, No.2 pp. 63-74, (1984).
 19. S. H. Lee, S. Y. Kim, J. A. Kim,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0, No.2 pp. 219-231, (2004).
 20.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 Psychology*, Vol.17, No.8 pp. 672-691, (2002).
21. D. Y. Lee, J. H. Cho, "Convergence influence of self-resilience,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9, No.10 pp. 561-569, (2018).
 22. Y. K. Shi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2008).
 23. O.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 6036-6043, (2015).
 24. E. S. Lee, E. J. Bong,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academic self-efficacy and instructor-student interaction on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 107-114, (2017).
 25. M. R. Lee, H. S. Jeon, "Influencing factors of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in the convergence era",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5 pp. 55-64, (2019).
 26. H. S. Park, J. Y. Han, "Self-leadership,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26, No.3 pp. 695-706, (2015).
 27. J. I. Kim,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 253-262, (2018).
 28. M. J. Yun, Y. C. Kw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communication ability to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6, No.11 pp. 433-440, (2018).
 29. N. Y. Yang, S. Y. Moon,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7, No.2 pp. 216-225, (2011).